

문성재

(우리역사연구재단 책임연구원)

## 1. 여는 글

중국에서 ‘대방(帶方)’이라는 행정구역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서는 반고(班固)가 편찬한 한나라 정사인 《한서(漢書)》이다.

### ◎낙랑군

무제가 설치하였다. 낙양에서 동북쪽으로 5,000리 떨어져 있다. 18개의 성이 있고 호구가 61,492세대, 인구가 257,050명이다. (속현으로) 조선, 염감, 패수, 함자, 점제, 수성, 증지, 대방, 사망, 해명, 열구, 장잠, 둔유, 소명, 누방, 제해, 혼미, 악도가 있다.

### ◎樂浪郡

武帝置。雒陽東北五千里。十八城，戶六万一千四百九十二，口二十五万七千五十。朝鮮，冉邯，淇水，含資，占蟬，遂城，增地，帶方，駟望，海冥，列口，長岑，屯有，昭明，鏤方，提奚，渾弥，樂都。<sup>2)</sup>

반고는 이 책의 〈군국지5(郡國志五)〉에서 낙랑군의 연혁을 소개하면서 그 속현들 중 8번째로 ‘대방’이라는 이름만 간단히 언급하였다. 대방이 낙랑군의 18개 속현의 하나였다면 그 크기는 인구가 1만 내외로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이다. 국내 강단의 소장 학자들이 재야 학계를 의식하여 연초에 펴낸 책을 보면 대방군의 위치와 관련하여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대방은 … 대체로 황해도 일대에 있었다고 파악되는데, 그러한 사정은 《삼국사기》를 비롯한 여러 사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연구자는 313년 이전까지의 낙랑군, 대방군이 한반도 북부, 구체적으로 대동강 유역에 소재하였고, 요서 지역과 환허강 유역의 낙랑군 및 조선현은 교치된 것으로 이해하였던 것이다.<sup>3)</sup>

이 책을 낸 “젊은역사학자모임”은, 강단의 소장 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는 모임으로 보이는데, 재야 사학자들을 거칠게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 강단에서 이에 대한 별다른 이의나 제재가 없는 것을 보면 이들이 2017년 현재의 한국고대사 학계의 논리를 그대로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과연 역사적 진실에 부합되는 것일까?

대방군의 실제 위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기준에 우리의 뇌리에 수

\* 본 연구는 2017년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을 받았으며, 이번 발표 내용은 우리역사연구재단에서 출판하는 《낙랑군은 요서에 있었다》(근간)의 일부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2) 반고, 《한서》, 〈군국지5〉“낙랑군”조.

3) 젊은역사학자모임, 《한국 고대사와 사이버역사학》, 제110쪽, 역사비평사, 2017.

십년동안 각인되어 있던 역사적 선입견, 즉 ‘대방은 한반도(황해-경기)에 있었다’라는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매년 대방군 관련 정보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한반도‘만’ 떠올릴 뿐 그 이외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시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고대사에 대한 재조명은 요원해져 이상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점들에 유념하면서 《삼국지(三國志書)》 등, 중국의 대표적인 사서, 문헌의 기록들과, ‘장무이묘(張撫夷墓)’, 안악 3호분(安岳三號墳) 등의 고고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대방군의 가장 이상적인 위치는 과연 어디쯤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강단에서 그동안 ‘실증’이라는 명목으로 늘어놓았던 주장들과 얼마나 판이한지 따져보도록 하겠다.

## 2. 삼한은 한반도 남부에 있었나 - “방 4천리”의 미스터리

낙랑군의 일개 속현에 불과하던 대방이 군으로 승격된 것은 후한을 지나 삼국시대 위나라 때이다. 당시의 역사가인 진수(陳壽: 233-297)는 《삼국지(三國志)》의 〈위지-공손전(魏志-公孫傳)〉에서 대방군의 연혁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환제-영제 말기에 한의 예족이 강해지고 번성하여 군현이 이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자 백성들 다수가 한의 나라로 흘러 들어갔다. 건안 연간(196-220)에 공손강은 둔유현을 기준으로 그 남쪽의 황무지를 떼어 ‘대방군’으로 삼고, 공손모, 장창 등을 파견하여 유민들을 다시 모으는 한편 군사를 일으켜 한 땅의 예족을 토벌하니 (중국의) 옛 백성들이 제법 (한국을) 벗어났고 그 후로 왜와 한은 대방군에 예속되었다. 경초 연간(237-239)에는 명제가 대방태수 유흔과 낙랑태수 선우사를 밀파하여 바다를 넘어 두 군을 안정시켰으며, ... 부의 종사관이던 오림은 낙랑이 당초 한국을 통치했었다 하여 진한에서 여덟 나라를 쪼개어 낙랑군에 귀속시켰으나 ... 신지가 한인들의 분노를 부추겨 대방군의 기리영을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대방태수 궁준, 낙랑태수 유무가 군사를 일으켜 그들을 토벌하면서 ... 두 군은 결국 한을 멸망시켰다.

桓靈之末，韓、濊強盛，郡縣不能制，民多流入韓國。建安中，公孫康分屯有縣以南荒地爲帶方郡，遣公孫模、張敞等收集遺民，興兵伐韓濊，舊民稍出，是後倭韓遂屬帶方。景初中，明帝密遣帶方太守劉昕、樂浪太守鮮于嗣越海定二郡，... 部從事吳林以樂浪本統韓國，分割辰韓八國以與樂浪，... 臣智激韓忿，攻帶方郡崎離營。時太守弓遵、樂浪太守劉茂興兵伐之，... 二郡遂滅韓。<sup>4)</sup>

이 대목을 이해가 쉽도록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후한 말 한의 예족이 강해지고 군현의 통제가 느슨해져 백성들이 한으로 이주함
- ② 건안 연간에 공손강이 둔유현 이남 황무지에 ‘대방군’을 설치함
- ③ 이주민들을 도로 불러들이는 한편 예족을 토벌하고 왜와 한을 대방에 편입시킴
- ④ 경초 연간에 유흔과 선우사가 바다를 넘어 두 군을 안정시키고 신지를 회유함
- ⑤ 오림이 낙랑이 한을 통치한 점을 들어 진한의 8국을 낙랑군에 편입시킴

4) 진수, 《삼국지》, 〈위자동이전〉.

- ⑥불만을 품은 신지가 한인들을 이끌고 대방군의 기리영을 공격함
- ⑦궁준과 유모가 반격에 나서 결국 한을 멸망시킴

이 정리 내용을 자세히 따져보면 과연 대방과 낙랑이 한반도에 존재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삼국지》 등 중국 정사들이 제공하는 지리정보들이다.

한은 대방의 남쪽에 있는데 동과 서는 바다로 막혀 있고 남으로는 왜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데 방 4천리는 될 것이다.

韓在帶方之南，東西以海爲限，南與倭接，方可四千里.<sup>5)</sup>

이 기사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대방군 남쪽에 삼한이 있음
- ②그 동서에는 바다가 있고 남쪽에는 왜국이 있음
- ③그 영역은 “방 4,000리”에 이름

《삼국지》의 위의 기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바로 삼한의 영역에 관한 언급이다. 진수는 대방군 남쪽에 위치한 삼한 각국의 영역이 “방 4,000리에 이른 다”고 분명하게 못박고 있다. 다들 “방 4,000리”가 얼마나 큰 면적인지 한번 곰곰이 따져보기 바란다. 이는 ‘방 4,000리’, 즉 한 변이 4,000리인 면적을 가리킨다. 즉, 동서로 4,000리, 남북으로 4,000리를 곱한 면적인 160,000리로, 이를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800만 km<sup>2</sup> 정도의 면적이다. 남미의 브라질이 855만 km<sup>2</sup> 정도이고 오스트레일리아가 769만 km<sup>2</sup> 정도이니 얼마나 큰 면적인지 짐작할 수 있는 셈이다.

중국의 정사인 ‘24사(二十四史)’를 조사해 보면 영토를 “방 2,000리”로 소개한 나라들을 적잖게 발견할 수가 있다.

연나라는 동으로 조선, 요동, 북으로 임호, 누번, 서로 운중, 구원, 남으로 호타하, 역수가 있는데 그 땅이 방 2,000여리이다.

燕東有朝鮮、遼東，北有林胡、樓煩，西有雲中、九原，南有淳沱、易水，地方二千餘里.<sup>6)</sup>

산 동쪽에 세워진 나라로는 조나라보다 강한 나라가 없다. 조나라는 그 땅이 방 2,000여 리이다. … 서로 상산, 남으로 하장, 동으로 청하, 북으로는 연나라가 있다.

山東之建國，莫彊於趙。趙地方二千餘里，… 西有常山，南有河漳，東有清河，北有燕國.<sup>7)</sup>

제나라는 남으로 태산, 동으로 낭야, 서로 청하, 북으로는 발해가 있다. … 제나라는 땅이

5) 진수, 《삼국지》, 〈위지·동이전〉 “삼한”조.

6) 사마천, 《사기》, 〈소진열전〉.

7) 사마천, 《사기》, 〈소진열전〉.

방 2,000여리이다.

齊南有泰山, 東有瑯邪, 西有清河, 北有勃海. … 齊地方二千餘里.<sup>8)</sup>

오나라 왕 부차는 땅이 방 2,000리나 되었다.

吳王夫差, 地方二千里.<sup>9)</sup>

부여국은 현토 북쪽으로 1,000리 떨어진 곳에 있다. 남으로 고구려, 동으로 읍루, 서로 선비와 경계를 접하고 있고 북으로는 약수가 있다. 그 땅이 방 2,000리이다.

夫餘國, 玄菟北千里. 與高句驪, 與挹婁, 與鮮卑接, 有弱水. 方二千里.<sup>10)</sup>

(고구려는) 그 땅이 후한대에는 방 2,000리이던 것이 … 수대에 이르러 점차 커져서 동서로 6,000리나 되었다.

其地後漢時方二千里. … 至隋漸大, 東西六千里.<sup>11)</sup>

(대)조영은 용맹하고 전쟁에 능하여 고구려, 말갈 사람들이 차츰 그에게 귀순했는데 그 땅이 방 2,000리였다.

祚榮驍勇善戰, 高麗、靺鞨之人, 稍稍歸之, 地方二千里.<sup>12)</sup>

이상의 사례들에서 춘추시대에 강대국이던 부차의 오나라를 위시하여 전국시대에 ‘전국7웅(戰國七雄)’으로 일컬어질 정도의 대국이던 연, 조, 제, 그리고 동북방의 강국이던 부여, 고구려, 발해의 강역이 모두 “방 2,000리”라는 표현과 함께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연, 조, 제 관련 부분은 당시의 유명한 외교가 소진(蘇秦: ?-BC284)이 당사자들 앞에서 외교적인 수사를 늘어 놓은 경우이다 보니 아무래도 다소 미화하거나 과장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오나라의 경우는 과거의 일을 기술한 내용이어서 그같은 과장이나 미화를 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부여, 고구려, 발해는 변방의 오랑캐로 치부되었으므로 오히려 비하하고 축소했으면 했지 그 영역을 부풀렸을 리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적어도 《회남자(淮南子)》, 《후한서》, 《통전(通典)》, 《자치통감(資治通鑑)》의 데이터들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삼한이 “방 4,000리”였다면 그 이상의 영토를 가지고 있던 진, 초보다는 규모가 좀 작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방 2,000리”의 오, 연, 조, 제나 초기의 부여, 고구려, 발해보다는 거의 2배나 큰 강역을 가진 대국이었다는 말이 된다. 바꿔서 말하자면, 전국시대 중기의 연과 조, 또는 연과 제, 또는 조와 제를 각각 합친 만큼의 상당히 큰 면적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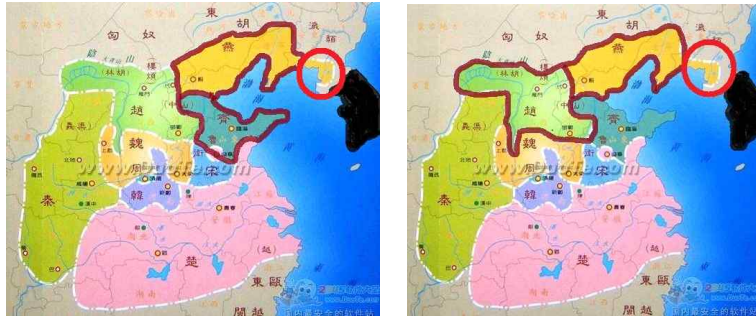
8) 사마천, 《사기》, 〈소진열전〉.

9) 유안(劉安), 《회남자(淮南子)》, 〈병략훈(兵略訓)〉.

10) 범엽, 《후한서》, 〈동이열전〉.

11) 두우, 《통전》, 〈변방2(邊防二)〉 “고구려”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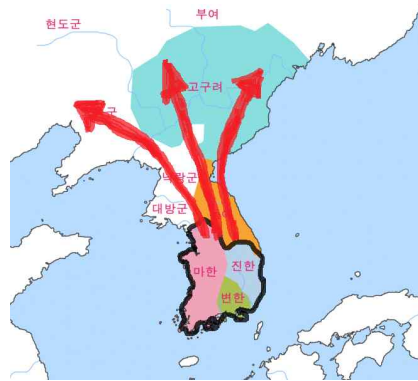
12) 사마광, 《자치통감》, 〈현종 상(玄宗上)〉.



＜“방 2,000리”의 두 나라를 합친 지도와 삼한의 비교＞  
(동그라미는 기존의 한사군 위치)

위의 두 지도를 살펴보면 “방 4,000리”의 면적은 현재 강단에서 주장하는 한강 이남의 삼한이 4개는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계의 주장처럼 대방군을 황해도 지역으로 비정하면 삼한 제국은 자연히 그 남쪽 즉 경기도 이남(38선 이남?)일 수밖에 없는데 그 나머지 땅의 면적이 고작 “방 600리”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남한 면적만큼의 “방 600리”를 제외한 “방 3,400리”나 되는 큰 면적이 황해도 밑에 더 남아 있어야 정상이라는 소리와 다를 것이 없다. 이 큰 면적의 땅을 한반도, 아니 남한 어디에 꼬깃꼬깃 뭉쳐 놓았다는 말인가 아니면 동해, 서해, 남해 어디엔가 숨겨 놓았다는 말인가? 만일 《삼국지》의 기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남는 답은 하나밖에 없다. 삼한의 면적은 한반도를 넘어설 정도로 컸다는 것이다. 즉, 대방군을 황해도 일대로 비정한 한중일 세 나라 사학자들의 기존의 지리고증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뜻이다!

만일 진수의 기사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기록이라면 “방 4,000리”의 삼한은 광개토-장수왕의 고구려처럼 압록강을 건너 요동반도까지 넘치는 큰 나라로 그려져야 하는 셈이다. 이것은 곧 삼한의 북쪽 경계선이 지금의 한강 이남이 아니라 그동안 대방과 낙랑의 영역으로 여겨져 온 황해도나 평안도보다 훨씬 위에 형성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한중일 세 나라 학계가 그동안 황해도, 평안도 일대로 비정해 온 대방군과 낙랑군의 실제 위치 역시 지금보다 훨씬 북쪽으로 끌어내어 중국의 요서 인근 지역까지 이동시켜야 된다는 뜻이다. 이것이 결코 허튼 소리가 아니라는 것은 또다른 정사의 기록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삼한이 “방 1,000리”만 되어도 그 경계선을 압록강 너머로 끌어내야 한다>

### 3. 대방군에서 구야한국까지의 거리는 7,000리

대방군의 위치와 삼한의 영역에 관한 중요한 단서를 담고 있는 것은 《후한서》와 《삼국지》이다.

왜인들은 삼한의 동남방 큰 바다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산이 있는 섬에 기대어 살고 있으며 대략 100여개의 나라가 있다. (한)무제가 조선을 멸망시킨 이래로 역관을 써서 한 나라와 소통한 나라가 30개나 된다. 이 나라들은 저마다 ‘왕’으로 일컬으면서 (그 왕위를) 대대로 전하면서 통치해 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왜왕은 야마대국에 산다. 낙랑군의 외곽은 그 나라로부터 12,000리나 떨어져 있으며 그 서북계에 있는 구야한국으로부터는 7,000여리 떨어져 있다.

倭在韓東南大海中，依山島爲居，凡百餘國。自武帝滅朝鮮，使驛通于漢者，三十許國，國皆稱王，世世傳統。其大倭王，居邪馬台國。樂浪郡徼，去其國萬二千里，去其西北界狗邪韓國，七千餘里。<sup>13)</sup>

왜인들은 대방군 동남쪽 큰 바다 가운데에 있는데 산 같은 섬을 국읍으로 삼고 있다. … (대방)군에서 왜까지는 해안을 따라 물길로 가는데, 한국을 지나서 좀 남하했다가 다시 좀 동쪽으로 가면 그 북안의 구야한국에 이르면 7,000여리가 되는데 바다를 하나 건너서 1,000여 리를 가면 대마국에 도달하게 된다.

倭人在帶方東南大海之中，依山島爲國邑。… 從郡至倭，循海岸水行，歷韓國，乍南乍東，到其北岸狗邪韓國，七千餘里，始度一海，千餘里，至對馬國。<sup>14)</sup>

이 두 정사의 기사는 왜국의 위치와 현황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으나, 이와 함께 대방군 및 삼한과 관련된 정보들도 알 수가 있다. 구야한국은 ‘구야한국(九邪韓國)’으로도 쓰는데, 현재 학계에서는 부산 인근의 김해 일대로 비정하고 있다.<sup>15)</sup> 여기

13) 범엽, 《후한서》, 〈동이전〉.

14) 진수, 《삼국지》, 〈위지·왜인전〉.

15) 일본 쪽의 어떤 학자는 “구야(狗邪)” 두 글자의 고대 독음이 “쿠제(くぜ, 쿠제?)”임에 주목하여 구야한국을 지금의 “거제도(巨濟島)”로 비정하기도 하였다. 거제도에 “구조라(舊助羅)”라는 지명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구사(구야) > 쿠제 > 구조(라) > 거제” 사이에는 발음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김해와

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삼국시대 즉 3세기 위나라의 대방군에서 구야한국까지의 거리가 “해안을 따라 물길로 가는 것이[循海岸水行]” 7,000여리 정도 된다고 한 대목이다. “해안을 따라” 간다는 것은 곧 ‘연안항법(沿岸航法, coastal navigation)’<sup>16)</sup>을 말하는 것으로, 고대 중국에서는 한나라의 고조선 정벌 때는 물론이고 삼국시대까지도 이같은 항해가 보편적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런데 연안항법으로 7,000리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자면, 지금의 부산(김해)에서 “해안을 따라” 서북쪽으로 7,000여리를 북상한 지점에 위나라의 대방군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뜻이다.

부산에서 대마도(對馬島)까지는 직선거리가 49km로 100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구야한국에서 대마국(對馬國)까지의 해로거리가 어떻게 해서 1,000리나 되는지에 관해서는 관련 정보가 부족한 탓에 지금 당장 확인하거나 검증할 방법이 없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대방군에서 연안항해로 한국을 경유하여 구야한국(김해)에 이르는 해로거리는 총 7,000여리, 즉 3,500km이며, 이 거리 데이터를 염두에 두고 구야한국을 기준점으로 삼을 때 그 종착지 즉 대방군이 자리잡고 있었을 곳은 그동안 정설로 여겨져 온 황해도도 평안도도 요동지방도 아닌 바로 하북성 경내의 모 지점이 나온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결과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예상했던 대방군의 위치, 그리고 삼한의 영역을 “방 4,000리”라는 《삼국지》의 기록과 대조해 보면 거의 일치하고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저자가 산출해낸 대방군과 구야한국의 거리, 그리고 이를 토대로 추정하는 대방군의 위치(하북성 경내)가 과연 정확한 것인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해로거리는 육로거리와는 달리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길이에 변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터널과 연육교로 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지금과 그렇지 못한 수천년전에는 우회거리와 직선거리 사이에 리수(里數)에 있어 엄청난 편차가 존재했으며, 따라서 고대사의 거리측정이나 지리고증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해로거리는 측정방법이 정확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수천년전과 지금의 리수 사이에는 의미를 부여할 만큼 큰 변동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 당시의 해로 여행은 조난이나 모험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연안항법이 고수되었다. 해로에서는 육로의 경우처럼 산(맥), 골짜기, 하천에 길이 막혀 수백, 수천 리나 되는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상사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후한서》나 《삼국지》보다 나중의 사서이기는 하지만 《수서(隋書)》와 《북사(北史)》에도 대방과 낙랑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리정보들이 소개되어 있다.

왜국은 백제와 신라의 동남쪽에 있는데 수로와 육로로 3,000리를 가며 … 오랑캐들은 리수를 잘 줄은 모르고 날 단위로 따지는데 그 국경은 동서로 5개월을 가고 남북으로는 3개월

거제는 거리상으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구야한국이 김해이나 거제이나에 대한 논란 역시 진행중이므로 여기서는 일단 김해로 비정하였다.

16) 문성재, 《한사군은 중국에 있었다》, 제100-107쪽.

을 저마다 바다로 이어진다. 그 지세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으며 야마퇴에 도움을 두고 있는데 바로 《위지》에서 말한 ‘야마대’라는 곳이다. 옛날 기록에서는 낙랑군의 국경 및 대방군으로부터 똑같이 12,000리라고 했는데, 회계의 동쪽에 있으며 담이와도 가깝다.

倭國, 在百濟、新羅東南, 水陸三千里, 于大海之中, 依山島而居. 魏時譯通中國, 三十餘國, 皆自稱王. 夷人不知里數, 但計以日. 其國境東西五月行, 南北三月行, 各至于海. 其地勢東高西下, 都于邪靡堆, 則《魏志》所謂邪馬台者也. 古云, 去樂浪郡境及帶方郡, 并一萬二千里. 在會稽之東, 與儋耳相近.<sup>17)</sup>

왜국은 백제, 신라의 동남쪽에서 수로와 육로로 3천리 떨어진 곳에 있다. … 또 낙랑군 경내나 대방군으로부터 똑같이 12,000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 … 대방군에서 왜국까지의 거리를 따져보면, 바닷길을 따라서 갈 경우 조선국<sup>18)</sup>을 거쳐서 조금 남쪽으로 조금 동쪽으로 하는 식으로 7,000여리를 간 후 바다 하나를 건넌다.

倭國, 在百濟、新羅東南, 水陸三千里, … 又云, 去樂浪郡境及帶方郡, 并一萬二千里, … 計從帶方至倭國, 循海水行, 歷朝鮮國, 乍南乍東, 七千餘里, 始度一海.<sup>19)</sup>

위의 《수서》〈동이전(東夷傳)〉에서 “옛날 기록”이란 앞서 소개한 《후한서》〈동이전〉을 말한다. 《북사》〈왜전(倭傳)〉에 소개된 대마국 이후의 여정은 일단 제쳐 놓더라도, 대방군/낙랑군에서 구야한국까지의 여정과 관련하여 두 기사에 언급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왜국은 백제/신라로부터 수로+육로로 동남쪽 3,000리 지점에 위치해 있음
- ② 옛 기록에는 낙랑군 및 대방군으로부터 12,000리 떨어져 있다고 함
- ③ 대방군에서 왜국까지는 해로로 조선국을 거쳐 지그재그로 7,000여리를 이동함

다시 말하자면, 왜국(야마대국)은 수로와 육로로 이동할 경우, 백제, 신라에서 출발하면 3,000리, 낙랑 및 대방에서 출발하면 12,000리 떨어져 있었던 셈이다.

만일 평안도가 낙랑군이고 황해도가 대방군이라면 《후한서》, 《삼국지》, 《수서》, 《북사》 등의 정사 속의 거리 데이터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상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 뿐이다. 《삼국지》 이래 400여년동안 편찬된 각종 정사들이 제공하는 대방군-야마대국의 거리정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과, 그것이 아니라면 지난 100년 넘게 한중일 세 나라 학자들이 요지부동의 정설로 신봉해 온 “평안도=낙랑군”, “황해도=대방군”이라는 지리고증이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일

17) 진수, 《삼국지》, 〈위자왜인전〉.

18)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대방군을 출발하여 구야한국까지 항해하는 도중에 거치는 경유지를 《삼국지》에서는 “한국(韓國)”으로 소개했으나 《북사》에서는 “조선국(朝鮮國)”으로 적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북사》가 편찬된 후 한참 시간이 지난 후인 명청대 또는 근대 이후에 누군가가 개찬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북사》는 이연수(李延壽)가 당나라 초기인 643년부터 편찬을 시작하여 659년에 완성한 북위의 정사이자. 문제는 당시는 이씨 조선은 출현하기 700여년 전이므로 이때 “조선”이라는 국호로 불릴 만한 나라는 고조선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고조선과 삼한은 그 위치를 한반도 내로 본다고 하더라도 영역은 전자가 북부, 후자가 남부로 엄연히 서로 달랐다. 따라서 여기서의 “조선국”은 이씨조선을 염두에 두었을 때에만 유효한 것이다. 이것이 단순한 개찬의 결과인지 연구자들의 접근을 방해하기 위한 조작의 결과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19) 위징 등, 《수서》, 〈동이전〉.



가능성이다.

이 즈음에서 앞서 예시한 대방군에서 구야한국까지가 7,000리 떨어져 있다고 한 《삼국지》〈왜인전(倭人傳)〉의 기사를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엄밀히 말하자면, 대방군에서 구야한국 또는 신라 동남부까지의 거리가 7,000리라는 것은 《삼국지》는 물론이고 《후한서》, 《수서》, 《북사》 등 여러 왕조의 북수의 정사 지리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다. 즉, 《삼국지》로부터 《북사》까지 거의 400여년동안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수많은 왕래자들에 의하여 공유되어 온 데이터라는 뜻이다. 더우기 《삼국지》는 위나라의 정통성을 과시할 목적으로 편찬된 정사인 데다가 이같은 거리정보들은 일종의 조사보고서로서 외교, 군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의와 가치를 지닌다. 거기에 소개된 여정이나 거리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조작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만일 이 데이터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분명히 당초의 리수가 도중에 수정되거나 폐기되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삼국지》에 소개된 대방군-구야한국 구간의 해로거리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인 것이다.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조금도 수정되지 않고 《북사》에도 그대로 소개되었다면 적어도 이 사서가 편찬된 당 고종(高宗) 현경(顯慶) 4년(659)까지는 “대방-구야한국 7,000리”라는 지리인식이 보편적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셈이다.

#### 4. 대방군-구야한국의 거리에 대한 일본 학계 고증의 한계

《삼국지》에 소개된 거리정보에 대해서는 일본 학계 역시 수백년전부터 지대한 관심을 보여 왔다. 〈왜인전〉에 제시된 거리정보를 잘 분석하면 일본 역사에서 그 실체가 아직도 베일 속에 숨겨져 있는 야마대국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야마대국은 일본에서 역사기록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이미 《삼국지》에 모습을 드러내는 최초의 통일국가이지만 그 정확한 위치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그 위치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학설로는 큐슈로 보는 ‘큐슈설(九州說)’과 야마토(大和, 지금의 나라)로 보는 ‘기내설(畿内說)’이 있다. 앞서의 《수서》〈동이전〉의 소개에 따르면 신라에서 야마대국까지의 거리가 수륙으로 3,000리 정도였다고 하므로 ‘기내설’이 보다 타당해 보이지만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일본 학자들이 관련 연구과정에서 가장 고심하는 문제들 중 하나가 대방군-구야한국 구간의 리수가 정확하게 몇천 리나 되는가 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 “7,000리” 문제를 대방군에서 구야한국까지의 전 구간을 수로로 이동한 것이라는 ‘전수행설(全水行說)’에서 해답을 구하려고 노력했으나 대방군이 황해도 일대이고 야마대국이 김해인 경우 남은 리수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이 과정에서 수백년동안 상식으로 통하던 기존의 주장들을 불식하고 새로운 가설을 제안한 학자가 바로 《삼국지》 연구의 권위자인 후루타 마사히코(古田武彦)이다.

그는 《삼국지》에서 대방군에서 구야한국까지의 거리가 7,000리나 된다고 한 것  
이나, “삼한이 방 4,000리”라고 한 것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였다. 왜냐하  
면 기존에 정설로 신봉해 온 “대방=황해설”이나 “삼한=남한설”을 따를 경우 《삼국  
지》의 “한국은 방 4,000리”나 “대방-구야한국은 7,000리”는 이미 앞서 설명한 것처럼,  
리수의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 구간을 해로로 이동하는 데도 《수  
서》의 9,000리와 2,000리 이상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들 중의 하나였  
다.

후루타는 이같은 거리상의 모순이 진수가 거리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이며, 따라서 〈왜인전〉의 거리 데이터는 기존의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과장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항해 경로에 대해서도 “조금 남쪽으로 다시 조금 동  
쪽으로(乍南乍東)” 즉 남-동-남-동 식의 남하는 한반도 서해안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ありえない)”라고 단언하면서 에도(江戸)시대 이래 수백년동안의 통설이던 ‘전  
수행설’에 반대하였다. 그러면서 해로거리와 항로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국육행설(韓國陸行說)’과 ‘단리설(短里說)’을  
새로 제안하였다.

‘한국육행설’이란 대방군에서 구야한국까지의 전 구간을 해로가 아닌 육로로 이동  
했다는 가설이다. 즉, 대방군의 치소 “서울 인근”에서 육로로 낙동강을 내려가 부산,  
김해까지 간 후 거기서 도로 배를 타고 서쪽으로 좀 간 후 P점에서 다시 꺾어서 대  
마도로 간다면 7,000리와 9,000리 사이의 편차가 충분히 해명된다고 본 것이다. 또,  
‘단리설’은 위진대에는 한대에 사용한 ‘장리(長里)’에 비하여 거의 1/6 정도의 “1리  
75m” 수준의 ‘단리’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가설이다. 그는 이 두 가설의 제기를 통하  
여 모순을 돌파하려 한 셈이다.



### <후루타가 제안한 ‘한국육행설’>

(너무 많이 남는 리수를 우회거리 적용으로 상쇄시키려 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후루타를 비롯한 일본 학자들의 이같은 거리고증은 필연적으로 100전 100  
패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그의 주장처럼 기존의 “전수행설”에 문제가 있거나 위진

대에 거리 계산에 ‘단리’를 사용해서가 아니다. 그들의 거리 계산상의 한계는 정작 다른 데에 있다. 저자가 전작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처럼, 일본 학자들의 다수가 ① 고대의 육로거리는 지금과 같은 직선거리가 아닌 우회거리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한계는 ②그들이 한결같이 ‘대방군은 황해도 일대에 있었다’라는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하다는 것이다! ... 그들은 수백년동안 대방군과 낙랑군이 한반도의 황해도, 평안도에 존재했다는 거짓 명제를 전혀 의심조차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결국 지금까지 대방군에서 구야한국까지의 이동 거리가 기록상의 거리의 2/3 밖에 되지 않아 거기서 남는 수천 리나 되는 큰 편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머리를 싸맬 수밖에 없는 것이다. ...

## 5. 대방군은 한반도 너머에서 찾아야 한다

대방군의 대체적인 위치가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사실은 출발지에서 종착지까지의 해안선 길이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충분히 입증할 수가 있다. 현재 위키백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쪽 땅끝인 전남 해남에서 북쪽 끝인 압록강 하구 즉 신의주까지의 해안선은 직선 길이가 대략 650km 정도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대표적인 검색 사이트인 바이두(百度)의 지리정보에 따르면, 신의주와 마주보고 있는 요령성 단둥(丹東)으로부터 서쪽으로 하북성 진황도(秦皇島)까지 요령성 전역의 해안선은 총 길이가 2,178km라고 한다. 그렇다면, 중국 하북성 진황도에서 한국 전남 해남까지의 대륙해안선 길이를 합산한 2,828km, 즉 5,656리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 경우 봉산군 인근 해안인 남포(南浦)에서 해남까지의 해안선 길이는 공개된 것이 없어서 그 정확한 거리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남선(崔南善)은 《조선문답(朝鮮問答)》에서 서울에서 해남까지의 해안선 길이가 1,000리라고 소개한 바 있으므로 이를 봉산-해남 구간 해안선의 대체적인 길이로 적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해남에서 김해까지의 해안선 거리 역시 공개된 것이 없어서 그 근처인 부산과 해남의 거리를 대신 적용할 수밖에 없지만 부산-해남의 해안선 길이가 225km이므로 이 값을 앞서의 2,178km와 합산하면 3,053km로 대략 6,106리 정도의 거리가 산출된다. 이런 식으로 황해도 봉산 인근의 해안을 출발지 즉 대방군 또는 낙랑군의 위치로 삼으면 구야한국까지는 다음의 리수가 나온다. 이를 《후한서》, 《삼국지》 등의 리수와 연결시켜 따져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다.

해상 이동 구간	기록상 거리 (추정치)	실측 거리 (추정치)	
대방군⇔구야한국	7,000리	(4,350 km?)	
진황도 ⇔ 단 동	(4,356리?)	2,178 km	A
신의주 ⇔ 해 남	(1,300리?)	650 km	B
서 울 ⇔ 해 남	1,000리	(500 km?)	C

해 남 ⇔ 부 산	(450리?)	225 km	D
진 황도 ⇔ 부 산	(6,106리?)	3,053 km	E
서 울 ⇔ 부 산	(1,450리?)	725 km?	F
F와 정사의 편차	-5,500리?	3,625 km?	

위에서 보는 것처럼, 대방군의 치소로 추정되어 온 봉산으로부터 구야한국의 소재지로 추정되는 부산(김해)까지는 해안선 길이가 대략 825km 즉 1,650리 내외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는 《삼국지》에 기록된 대방군-구야한국의 해로거리인 7,000리 중에서 남는 리수만 해도 무려 4,350리 즉 2,175km 정도나 되는 셈이므로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다. 봉산에서 부산까지의 해안선 길이가 넉넉하게 따져서도 1,650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 4,350리는 어디에다 갖다 붙일 것인가? 부산에서 두만강까지의 해안선 길이가 809km 즉 1,618리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전 구간 7,000리에서 남는 4,350리 정도라면 부산을 출발지로 다시 울진-삼척-강릉-원산-함흥-김책-나진-두만강을 거쳐 러시아의 영해까지 가고도 남는 길이인 셈이다. 따라서 만일 구야한국이 지금의 부산(김해) 인근이 확실하다면 봉산 인근으로 비정된 대방군의 위치는 자연히 잘못된 결과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해안선 길이만 대입해보아도 황해도 인근을 대방군의 위치로 보기에 엄청난 무리가 뒤따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학계에서 정설로 신봉되는 “대방=황해설”은 이제 불식하고 그보다 훨씬 북쪽 — 압록강 너머에서 대방군의 위치를 찾아야 옳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만 발상을 전환하여 대방군의 위치를 중국의 요서로 변경한 후 다시 거리를 계산해 보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중국에서 공인된 진황도-단동 구간(E)의 해안선 총 길이가 2,178km이므로 거의 4,356리를 벌여주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의주-해남-부산(김해?) 구간(B+D)의 해안선 길이 650+225=875km, 즉 1,750리를 합산하면 《삼국지》 등에 소개된 7,000리에 근사한 6,106리라는 리수가 산출된다. 여기에 진황도에서 부산까지의 전체 구간(A+B+D) 사이의 중간 경유지들을 드나드는 이동거리까지 새로 추가하면 7,000리와의 격차는 더욱 좁혀질 것이다.



## 〈대방군을 황해도로 비정하면 《삼국지》나 《수서》의 기록은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최근에 강단의 소장 학자들이 낸 책을 보니 《삼국지》에서 삼한이 “대방의 남쪽에 있다”고 한 기록을 근거로 들면서 “대방군의 남쪽에는 삼한이 있다고 했는데 만일 대방군의 위치를 요서에서 찾으면 그 남쪽에 있는 것은 삼한이 아니라 발해 바다이다”라고 반박한 대목이 있었다. … 정사에 나와 있는 “남쪽”이라는 단어를 보고 삼한을 정남쪽에서만 찾아 헤매고 거기다 ‘남쪽에 무슨 삼한이 있느냐’고 볼멘 소리를 하는 것은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증거이다. 삼한이 거기에 있을 턱이 없기 때문이다. 조금만 센스가 있는 학자라면 “남쪽”이라는 단어에 동남쪽이나 서남쪽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대방군을 중심으로 그 동남쪽이나 서남쪽도 찾아볼 것이다. 실제로 여기서도 “대방의 남쪽”이란 대방군에서 비스듬하게 동남쪽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옳다. 그 증거는 《삼국지》 등에 소개된 대방군에서 구야한국까지의 항해 경로를 ‘유심히’ 따져보아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삼국지》 등에는 대방군-구야한국 구간을 “조금 남쪽으로 다시 조금 동쪽으로(乍南乍東)”처럼 남-동-남-동 식으로 항해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후루타 등의 일본 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봉산에서 부산까지의 구간은 거의 남-서-남-서 식으로 남하하는 구간이 대부분이어서 정사의 기록과는 방향이 그다지 부합된다고 할 수 없다. 반면에 진황도에서 부산까지라면 위의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더러 북쪽과 서쪽으로 움직일 경우도 있지만 《삼국지》 등에서 소개한 항로와도 대체로 부합되는 편이다. 이처럼 출발지만 변경해도 《수서》 〈동이전〉의 거리정보와 《삼국지》 〈왜인전〉 등 400년동안의 중국 정사 속의 거리정보들과 본질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굳이 《삼국지》에 언급되지도 않은 ‘한국육행설’ 같은 새로운 가설을 짜내느라고 심하는 수고를 할 필요는 없는 셈이다.

### 6. ‘대방계’ 고고 유적, 유물들의 미스터리

#### 1) 봉산 ‘장무이묘’의 경우

‘장무이묘’의 존재가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1911년 건축학과 출신 식민사학자 세키노 타다시(關野貞: 1868-1935)에 의해서였다. 이 묘에서는 1911-1912년의 조사과정에서 봉분 위, 연도부, 감실 등에서 다음과 같은 전돌들이 발견되었다.

1. 태세문 어양 장무이전(太歲戊漁陽張撫夷塹)
2. 대세재문 어양 장무이전(大歲在戊漁陽張撫夷塹)
3. 천생소인 공양군자 천인조전 이장부모 기호차견 전제기지(天生小人供養君子千人造塹以葬父母既好且堅典齋記之)(2행)-사군 대방태수 장무이전(使君帶方太守張撫夷塹)(2행)
4. 애재부인 암배백성 자민순 숙야불녕 영측현궁 ?할인정(哀哉夫人庵背百姓子民徇夙夜不寧永側玄宮?割人情)(2행)-장사군(張使郡)

5. 장사군전(張使君塼)
6. 조주부영전근의불와(趙主簿令塼勤意不臥)
7. 대세신 어양 장무이전(大歲申漁陽張撫夷塼)
8. 대세재무 어양 장무이전(大歲在戌漁陽張撫夷塼)

세키노 등 조선총독부의 식민사학자들은 이 전돌들에 찍힌 명문에 “대방태수”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 것, 그리고 인근의 “당 토성(唐土城)”에서 “채집된” 한대 양식의 토기와 기와 몇 점을 근거로 이 ‘장무이묘’가 대방태수 즉 한족의 것이며 따라서 황해도 일대는 한대의 대방군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를 발행하여 국내외에 유포하고 발굴 사실을 선전하는 데에 열을 올렸다.<sup>20)</sup> 그러나 이같은 판정이 과연 역사적 진실과 부합되느냐에 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당초 ‘장무이묘’ 조사과정부터가 여러 모로 의심스러운 점이 많은 것은 접어 두더라도 그들이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증거”라고 극찬한 토기, 기와들과 ‘장무이묘’ 사이에는 애초부터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장무이묘’를 대방태수의 묘로, 황해도를 대방군으로 판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물증이 되어준 문제의 전돌들 역시 너무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①신원 표시가 많다 - 세키노가 “채집한” 전돌은 단 8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묘주의 이름 ‘장무이’이 찍힌 것이 무려 6점으로 전체의 80%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정인성은 도쿄대에서 세키노 컬렉션을 재조사한 결과 17점의 전돌을 추가로 확인했는데 복수의 전돌에서 역시 “장사군(張使郡)”, “장사전(張使塼)”, “사군 대방태수 장무이전(使郡帶方太守張撫夷塼)” 등의 명문이 확인되었다고 한다.<sup>21)</sup> 중국 측 문헌자료나 일본측 연구를 볼 때 지금까지 다른 분묘에서는 묘주의 신원을 명기한 전돌이 이처럼 많이 쏟아져 나온 전례가 없다.

②작명 전통에 어긋나는 이름 - 전돌의 명문들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아무래도 ‘장무이(張撫夷)’라는 단어일 것이다. 식민사학자들은 이를 대방태수의 이름이라고 판정했으나 이름 치고는 너무 작위적이다. ‘무이’는 ‘오랑캐를 달랜다’는 의미로, 한대 이후의 관직명에서나 볼 수 있는 표현이다. 그러나 중국 정사 ‘24사’를 통틀어 역사적으로 ‘무이’를 이름으로 쓴 사례는 단 1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들이 미래에 오랑캐를 관리하는 장군이 될 것을 예측하고 이런 작위적인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부터가 가소로운 일이지만 중국에서는 위진대까지만 해도 두 글자 이름은 예법에 어긋난다 하여 한족들은 거의 99% 외자 이름을 썼다.<sup>22)</sup>

③문란한 호칭들 - 관청에서 제작한 전돌답지 않게 ‘태수(?)’에 대한 호칭이 “장사군(郡)”, “사군 대방태수 장무이”, “장사군”, “장사” 등으로 제각각인 것도 의심스

20) <이상이 지금까지 세간에 알려져 있는 세키노 타다시의 황해도 사리원 장무이묘 발견 및 한대 대방군 위치 비정의 시말이다.>

21) 정인성, <대방태수 장무이묘의 재검토>, 《한국상고사학보》 제69호, 2010.

22) 엄경망(嚴耕望)의 《양한태수자사표(兩漢太守刺史表)》에 소개된 전한, 후한 500년동안 《사기》, 《한서》, 《후한서》에 기록된 역대 태수, 자사들의 이름들만 해도 성씨가 두 글자이거나 이민족이 아니고는 거의 대부분이 외자 이름을 쓴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같은 경향은 낙랑, 현토, 대방 태수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렵기는 마찬가지이다. 한정된 자수내에서 묘주의 신원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도 희귀하지만, ‘군’이 ‘군자 군(君)’이 아닌 ‘군 군(郡)’으로 찍혀 있거나 심지어 ‘군’조차 누락된 채 “장사(張使)” 식으로 찍혀져 있는 것은 ‘장무이묘’의 유물이 유일할 것이다. 아무리 변방의 관청이라지만 현지의 최고 수장인 태수에 대한 존칭을, 그것도 명복을 비는 근엄한 기념물에 이처럼 문란하고 무성의하게 쓸 수는 없다.

④틀린 기년 표기 - ‘장무이묘’에서는 기년을 “대세무재(大歲戊在)”(a), “대세재무(大歲在戊)”(b), “태세무(太歲戊)”(c), “태세신(太歲申)”(d) 네 가지로 표기하고 있다. 이 중 (a-c)에서는 공통적으로 천간(‘무’)만 나와 있고 지지(‘신’?)는 보이지 않는 반면 유독 (d)만 지지만 나와 있고 천간이 빠져 있다. 그런데 ‘재’가 천간 뒤에 나오거나(a), 지지만 표시한 경우(d)는 문법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전돌에서는 전무하다. 기년이 찍힌 전돌 거의 모두가 천간 ‘무’에서 끝나는 것도 수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⑤명문 전돌이 과도하게 많다 - 묘주의 신원을 명시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명문들이 찍힌 것들까지 합치면 한 무덤에서 수십 점의 명문 전돌이 수습된 셈이다. 중국에서는 통상적으로 한 곳에서 명문 전돌이 많아 봤자 서너 점 정도인데 이처럼 수십 점이나 나온 경우는 그 유례(類例)가 전무하다.

## 2) 안악 3호분의 경우

해방 이후로 북한에서 확인된 고분으로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받는 안악 3호분의 경우도 수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 묘가 ‘동수묘(冬壽墓)’라는 별칭을 갖게 된 것은 그 벽면에 작성된 7행 68자의 묵서(墨書) 때문이다.

- 1 □和十三年十月戊子朔廿六日
- 2 □丑|使持節都督諸軍事
- 3 平東將軍|護撫夷校尉|樂浪
- 4 □昌黎玄菟帶方太守|都
- 5 鄉侯|幽州遼東平郭
- 6 都鄉|敬上里|冬壽字
- 7 □安|年六十九|薨官

묘 자체는 3-4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진품이 확실해 보이거나 벽에 작성된 묵서는 그 내용 여러 군데에서 석연치 않은 조작의 징후들을 드러내고 있다.

①연호의 수수께끼 - 일제가 조사를 독점한 점제현 신사비, 안악 3호분 묵서 등의 유물에서는 유독 연호에서 첫 글자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이는 확실한 연대를 확인하는 데에 혼선을 줌으로써 학자들의 접근과 판단을 방해하기 위하여 일부러 첫 글자를 지워 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 정도이다.

②연호 착각의 문제 - 묵서 첫머리에 나와 있는 “□화(□和)”를 학계에서는 동진의 목제(穆帝) 사마담(司馬耽)이 345년에서 356년까지 사용한 연호인 “영화(永和)”

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영화”는 제12년까지만 사용되었다. 학자들은 이에 대하여 묘주 또는 묘역 조성주체가 연호가 바뀐 것을 모르고 “영화 13년”으로 적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대사회에서 연호는 지금의 달력과도 같은 것이어서 해가 바뀌면 정부 차원에서 각 관청마다 널리 알리는 것이 관례였다. 게다가 연호는 황제가 직접 정한 기년체제이기 때문에 개인이 임의로 바꾸거나 고쳐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하층민도 아닌 고관대작이 것처럼 큰 고분을 조성하면서 연호가 바뀐 것을 모르고 엉뚱한 기년을 적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③동수의 출신지 문제 - 목서에는 그의 관향이 “유주(幽州) … 도향(都鄉)”으로 나와 있으나 동수가 태어나기 전인 281년에 ‘평주’로 명칭이 바뀌어 있었다. 따라서 그의 출신지는 “유주 요동군”이 아니라 “평주 요동군”으로 소개되었어야 정상인 것이다. 게다가 그가 ‘도향’ 출신으로 조정으로부터 ‘도향후’로 봉해졌다고 주장하지만 당시의 ‘도향’은 도성 주변의 ‘향’급 지역을 일컫는 보통명사이자 ‘도향’이라는 지명을 뜻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다. 그런데 목서의 작성주체는 ‘도향’과 ‘도향후’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④동수의 경력사항 문제 - 목서에는 288년생인 동수가 336년에 48세의 나이로 고구려로 망명할 때까지 “사지절도독제군사”, “평동장군”, “호무이교위”, “낙랑상”, “창려, 현토, 대방” 3군의 태수, “도향후”를 역임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관직명들은 모두가 고구려 특유의 명칭이 아닌 중국식 명칭이므로 전부가 고구려 망명 전에 거친 벼슬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중국 정사에는 그가 모용연에서 “사마(司馬)”를 지낸 일만 간단히 소개하고 있을 뿐 위의 어떠한 관직명도 언급하지 않았다. 목서는 그가 낙랑군의 재상에 이어 창려, 현토, 대방의 태수를 두루 거쳤다고 적고 있으나 한 사람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창려, 현토, 대방의 태수를 차례로 거쳤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지만<sup>23)</sup>, 그 정도로 대단한 관록의 소유자라면 당연히 중국 정사에도 그의 화려한 경력이 비중있게 다루어졌어야 정상이다. 따라서 그의 경력은 후세의 누군가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⑤이상한 관직명1 - 목서에 언급된 “사지절도독제군사”는 이 목서상의 경력들이 동수 본인이 아닌 후세의 누군가에 의하여 조작된 것임을 증명해 준다. 즉, 전자의 경우는 특정 지역에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해당 지역에서의 군사권을 보장했던 임시 직함으로, “-제군사” 앞에는 “감병주제군사(監并州諸軍事), 도독유주제군사(都督幽州諸軍事), 도독형주제군사(都督荊州諸軍事), 감양익2주정토제군사(監梁益二州征討諸軍事), 도위형상교엄등4주제군사(都尉荊湘交廣等四州諸軍事), 독중외제군사(督中外諸軍事)” 식으로 반드시 군사권이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명시하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런데 목서처럼 범위가 설정되지 않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는 군사권이 전국에 허용되거나 아예 날조된 직함일 가능성밖에 없다.

23) 현토군만 해도 이 기간에 배무(裴武: ?-313), 고익(高翊), 유패(劉佩), 을일(乙逸: 352) 등 네 명이나 되는 태수가 정사에 이름을 남기고 있다. 이 사이에는 동수가 현토태수를 지낼 틈이 없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만일 그가 태수를 지냈더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낙랑, 창려, 현토, 대방 중 어느 한 곳의 벼슬이라도 언급되었을 것이다.



⑥이상의 관직명2 - 일본 학자 오카자키 케이(岡崎敬)는 ‘(장)무이’가 관직명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목서의 “호무이교위(護撫夷校尉)”를 그 예로 든 바 있다. 그러나 이 관직명은 존재 자체가 후세에 조작된 것임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 ‘교위’라는 관직이 사용된 진한대로부터 위진남북조에 이르기까지 ‘호이□□’ 또는 ‘무이□□’ 식의 명칭은 있어도 ‘호무이□□’ 식의 명칭은 전무하다. 게다가 문법적으로도 ‘호’나 ‘무’가 각각 ‘~를 보호하다’나 ‘~를 포용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여서 서로 개별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호무’는 ‘[~를 포용하는 것]을 보호하다’ 식으로 번역되어서 문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비문(非文)에 해당된다. 그런데 목서에 “호무이교위”가 등장하는 것은 문법이나 당시의 전장제도에 무지한 누군가가 후세에 가공의 관직명을 적어 놓았다는 의미인 셈이다.

## 7. 닫는 글

국내 고대사학계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식민사학자들에 의하여 불법적, 기형적으로 이루어진 고적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지금까지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정사 속의 대방군 관련 기록이나 ‘장무이묘’의 전돌, 안악 3호분의 목서 등의 관련 고고자료들을 분석해 본 결과 그같은 주장은 사실(fact)이 아니라 근거가 없는 억측(speculation)에 불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면의 제약으로 본 논문에 반영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황해도를 대방군으로 비정하는 데에 가장 결정적인 물증으로 내세우곤 하는 장무이묘 전돌들만 해도 그러하다. 이 두 고분에서 발견된 전돌과 목서에는 고고학에서 대단히 중시하는 고고적 보편성, 일관성은 아예 보이지 않고 오로지 특수성, 의외성만 난무하고 있다. 고고학적으로 이처럼 문제가 많은 의혹덩어리 유물들에 대하여 국내 고대사학계에서 지난 수십년 동안은 물론 2017년 현재까지도 전혀 의심이나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것은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황해도가 지리적으로 대방군과 무관한 지역이라는 사실은 중국 정사 기록의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삼한이 방 4,000리”라는 《삼국지》의 기록, “대방에서 구야한국까지 7,000리”라는 《후한서》 등의 기록들은 한결같이 한사군이 한반도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이상적인 위치 역시 중국의 하북과 요령 인근 지역임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다. ‘24사’ 그 어디에도 대방군이 황해도에 설치되었다거나 거기서 중국으로 교치되었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국내외 학계가 100년 넘게 집요하게 신봉해 온 낙랑, 현토, 대방 ‘교치설’이 알고 보면 학자들의 원전 오독 또는 역사 조작에서 비롯된 ‘완전한 허구’에 불과함을 방증해 주고 있는 셈이다. 이상의 고고적, 문헌적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지난 100년동안 정설로 신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황해지역와 대방군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뒷받침해 줄 만한 어떠한 고고적, 문헌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대방=황해설”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한사군이 한반도에 존재했다는 주장 역시 처음부터 재고되어야 옳다고 본다.